

순천 대형마트 평일 휴업 논란

광주지역 대형마트와 SSM도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서 오는 23일부터 다시 휴일 의무휴업을 실시하게 된 가운데 순천지역 대형마트들이 평일 휴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순천지역 대형마트 4곳이 1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평일 의무휴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순천지역 중소상인과 시민단체들은 타 지역의 조례개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중소상인들은 "자율적인 휴업일이라도 평일휴업은 유통법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휴일 의무휴업이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역 내 대형마트 4곳과 협의를 거쳐 이달부터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월요일에 휴업을 하기로 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평일휴업을 실시 중이다.

순천시는 지난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홈플러스 2곳, 이마트 2곳 등 대형마트 4곳이 휴일 의무휴업을 실시했다가 지난 8월 3일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휴일 영업이 재개된 상태였다.

순천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측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생 방안 차원에서 조례 개정 전까지 월 2회 쉬는 것에 대해 자율적인 참여를 당부하자



순천시와 지역 내 대형마트 4곳이 평일 의무휴업 실시에 합의하면서 10일 이마트 순천점이 휴업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고 휴무에 들어갔다. 이날 이마트 순천점과 홈플러스 순천·순천풍덕점, 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순천점 등 4곳이 평일 휴무를 실시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홈플러스·이마트 4곳 조례개정전까지 시민단체·중소상인 "꼼수 부리나" 반발

대형마트들이 월요일 의무휴업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며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개정된 조례가 시행될 예정이며 의무휴업이 평일에 실시될지 가처분 결정으로 휴일 영업이 재개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순천 경실련을 비롯 시민단체와 지역 중소상인단체들은 평일 휴업은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 뿐더러 조례 개정이 진행 중

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 시점에 순천시의 평일 휴업 실시는 타 지역에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무국장은 "법원에서 대형마트의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당시 절차상 문제 때문이지 유통법과 대형마트 규정에 관한 조례의 취지나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며 "시와 시의회가 유통법의 취지에 맞게 절차적인 문제를 보완해 심사영업 제한과 휴일 의무휴업이 다시 실시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미기자 emlee@

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 시점에 순천시의 평일 휴업 실시는 타 지역에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무국장은 "법원에서 대형마트의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당시 절차상 문제 때문이지 유통법과 대형마트 규정에 관한 조례의 취지나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며 "시와 시의회가 유통법의 취지에 맞게 절차적인 문제를 보완해 심사영업 제한과 휴일 의무휴업이 다시 실시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미기자 emlee@



인터넷 펀드 가입하면 선물 평평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10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광주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적립식펀드를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펀드 멀티찬스 이벤트(사진)'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인터넷을 통해 납입기

간 1년 이상, 자동이체 매월 10만원 이상으로 적립식펀드를 신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12월 15일 추첨을 통해 경품이 지급된다. 인터넷을 통해 펀드를 3개이상 가입한 고객 중 1명에게는 하이브리드 카메라를, 2개이상 가입 고객 중 5명에게는 20만원권 기프트카드의 행운이 돌아간다. /최재호기자 lion@

'카드사' 압제 상흔

수수료 인하후 연회비 올리고 서비스 축소

일부 신용카드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회원 연회비를 대폭 올렸다. 수익성이 낮은 카드를 없애버리고 포인트 적립률을 절반 이상 축소하기도 했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가 이날부터 '삼성카드 7+' 가족카드의 연회비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34%가량 올렸다. 삼성카드는 "회원에게 제공하는 혜택과 서비스의 질 유지를 위한 최선의 조치이므로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여 경영 압박을 받자 포인트와 마일리지 등 부가 서비스를 줄여 수익성을 보전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압박에 부가 서비스 축소가 어렵자 연

회비 인상이라는 편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신한카드나 KB국민카드 등 일부 카드사도 현행 부가 서비스를 유지하되 연회비를 소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이 쓰지 않아 유지비만 많이 드는 카드와 서비스는 과감히 폐지는 회사도 있다.

신한카드는 '정상재이엘에스-신한카드'를 내년 2월 5일, '은세텔레콤-신한카드'는 오는 12월 29일에 서비스를 끝내기로 했다. 삼성카드는 고객의 이용이 적다며 구형 휴대전화에 제공해온 모바일 서비스를 내년 5월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기름값 비싸" ... 차 놔두고 대중교통

세븐일레븐, 8월 교통카드 충전 전년보다 94% ↑

유가가 고공 행진을 계속하자 편의점 등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소비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휘발유값마저 오르자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10일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교통카드 충전 매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총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7.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휘발유값 상승이 본격화한 8월 한달 동안은 충전액이 전년보다 93.9%나 늘었으며, 이달 들어서도 100%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7월 17일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상승하고 있으며 6일 기준 2천26.29원을 기록

해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편의점 업계 1위인 CU(옛 웨비마트)에서도 비슷한 수치가 나타났다. CU에서 분석한 9월 하루 평균 충전 매출은 8월보다 19.8% 늘었으며 교통카드 구입액 역시 28.7% 상승했다.

세븐일레븐의 한 관계자는 "휘발유 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으면 이 같은 추세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교통카드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프로모션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추석선물 양말·손수건은 줌..."

받고 싶지 않은 선물 1위... 직장인 42%

직장인들이 가장 받기 싫어하는 추석 선물은 양말과 손수건 세트라는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셜커머스업체인 티켓몬스터는 20~40대 남녀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회사에서 받고 싶지 않은 추석 선물'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1.8%가 '양말과 손수건 같은 잡화세트'를 꼽았다. 이어 '비누, 샴푸 등 생활품 세

트'라고 답한 비율이 26.6%로 2위였고, '꿀, 비타민, 배추 등 건강보조식품'이 11.4%, '쌀, 참치 등 통조림 선물세트'가 11.0%로 집계됐다.

빈장, 고추장, 한과 등 전통 특산품을 꼽은 응답은 9.2%였다.

또 '거래처나 업무 관계자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게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문항에 절반이 넘는 50.2%가 '내 것이므로 집에 가져간다'고 답했다. '팁달들과 나눠

가진다'나 '부서장에게 상납한다'는 응답은 각각 19.8%와 6.2%였다. 거래처에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20.2%였다.

이번 추석 부모님께 드릴 선물로는 77%가 '현금'을 꼽았고, 응답자의 10.2%는 '홍삼, 인삼, 영양제 등 건강보조식품', 6.2%는 '한우, 굴비, 과일 등 음식세트'를 꼽았다.

티몬은 "최근 어려운 경기 탓에 실속형 선물을 찾는 이들이 늘었다고 하지만 명절의 의미를 느낄 수 없는 흔한 선물은 또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연합뉴스



광주국세청, 낙과피해 과수원 돕기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서국환)은 최근 태풍으로 낙과 피해가 발생한 나주시 소재 과수원을 방문, 일손 지원에 나섰다. (사진) 이날 광주지방국세청 직원 60여명은 태풍으로 떨어진 낙과수거등을 했다. 또 관내 많은 피해로

힘들어 하는 농가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피해 농가에서 생산하는 과일과 과일즙을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청 관할 세무서에서도 피해 농가 일손돕기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

8월 생산자물가 0.7% ↑

8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7% 올랐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생산자물가는 4월 -0.1%, 5월 -0.6%, 6월 -1.4%, 7월 -0.5%로 계속 하락하다가 5개월 만인 8월에 내리세로 마감했다.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0.3% 올랐다.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생산자물가는 0.1% 떨어졌다. 이달 생산자물가의 반등은 과일·채소류 때문이다.

한은은 "과실류가 전월보다 11.2%, 채소류가 13.4% 오른 탓에 농림수산물 물가가 전월 대비 5.5%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호박(125.9% ↑), 오이(71.6% ↑), 상추(45.2% ↑), 수박(42.2% ↑)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9월에는 8월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광복 67주년 백범 김구 선생 서거 63주년 기념

조국광복, 자주독립, 남북통일, 애국 애족 정신의 결정판

소원

아직도 못 다이룬 임의 소원

창무극 백범김구

2012. 9. 13/목/ 오후 6시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극장

| 예술총감독 | 송순섭 | 공연단체 | 전라남도국립국악단
| 연출 | 강미진 | 상임지휘자 | 박승희

주최 | (사)동편제판소리보존회, (사)남도문화예술진흥회
주관 | (사)동편제판소리보존회, (재)전남문화예술재단
후원 | 국가보훈처, 전라남도, 광주지방보훈청
협찬 | (재)서암문화재단, (재)유당문화재단
특별후원 | 광주일보사
문의 | 062)525-6665

무료입장